

가정 예배 모범

- 2021_10_24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10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우리를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온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출애굽기 36:8-38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 재료들을 넘치도록 가져오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기술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은 무엇을 따랐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로운 기술자들과 함께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 자신들의 생각이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만들어 갑니다. 만드는 과정도 자세히 기록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지 보여줍니다. 성막은 총 네 겹으로 만들어 지는데 가장 안쪽에는 청색, 자색, 홍실로 무늬를 놓은 열 폭의 휘장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할 때에는 금 갈고리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 털로 열 한폭으로 만듭니다. 이번에는 놋 고리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덮개는 수양의 가죽으로,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조각목, 금, 은, 놋 등 다양한 재료로 성막 틀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꼭 한 가지 재료가 아니라 각각 역할에 맞는 다양한 재료로 지어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재능으로 이루어 감을 보여줍니다.

2) 이스라엘에 지은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온 백성 함께 성막을 지어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성막의 가장 겉은 해달 가죽이고 안으로 갈수록 귀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성막 내부의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으로 나뉩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짜고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습니다. 휘장을 위해 세워진 네 개의 기둥은 금으로 싸고 은으로 받침을 만듭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성막 지성소에 거하십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지며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직접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